

기독교 전래에 따른 일제 강점기 경제 인식의 특징과 나눔 인식*

서신혜 (한양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 조교수)

I. 시작하며

II. 1920년대 이후 기독교 절제운동과 생활안내서들

III. 일제 강점기 기독교적 재물 인식의 특징

1. 재물의 효용 규정: 인격 형성의 도구로서의 재물
2. 경제 주체의 변화: '칭지기'인 개인

IV. 전통적 재물 인식과 기독교 재물 인식의 차이

V. 물질에 대한 새 인식이 나눔 문제와 연관되는 지점

VI. 마치며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A2A01020267).

• ABSTRACT •

The sharing recog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economic consciousness in the Japanese colonial rule period, according to the Christianity introduced

Seo, Shin-Hye

After Christianity was introduced to Korea in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a major change has been made in the economic consciousness of Korean.

First, Good personality of human was accomplished through the use of the riches. Second, before this time, human was recognized as the principal economic subjects, but in this period, the steward notions introduced the concept of economic managers. According to the notion of stewardship, the new human stewardship life concept including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has been suggested.

People of Joseon Dynasty in that times, think that there is a special 'fortun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heaven. They were thinking that people can live only following the rules of heaven and given luck. But the human was an administrator with the concept of autonomy for the economy through the introduction of Christianity. Therefore, the results c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efforts of the non-self-given luck thought was passing through economic concepts introduced Christianity. Joseon Confucian scholars regarded the pursuit of a life that is under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and the pursuit of wealth can not coexist. But the rich was regarded as a tool of personality formation. That enables it to simultaneously pursue both.

This recognition caused due to the Christian influence has motivated so people can practice it easier for wealth sharing. Stewards of human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owner, he will want to use owner's(or His) wealth in His will. In Christianity, God is the master of riches. And the essence of God is love. Steward who must choose the direction in which the practice of God's love. In

other words, the Christians will have the right to share the wealth in the direction that people use to practice love. Once they have the idea that they can use fully the personality of the person making the riches, wealth is not the purpose of life but a tool. In other words, The pursuit of wealth itself, but the people using the wealth, will focus on the completion of personality and faith. Therefore, the Christians spread the wealth sharing is considered to be the ultimate goal for the completion of the right faith and the right personality to act even more aggressively, and this new awareness will lead to action, made out shouting, and sharing the spirit of the new.

Key words: Korea Christian Temperance Movement, The notion of stewardship, The sharing recognition, The Christianity introduction, 'Money the acid test', 'The White Life for Man', 'A Straight Road to Christian Truth'

I. 시작하며

이 글은 나눔 인식을 연구하는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특히 기독교 전래에 따른 일제 강점기 한국 기독교인의 나눔 인식의 양상을 살핀 것이다. 여기에서 나눔이란 자기의 재물을 남과 공유하거나 남을 위해 내어 놓는 기부 행위나 의식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우리 사회는 치부(致富) 그 자체에 대해 관심을 갖던 지난날과 달리 나눔이나 복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특히 나눔 인식과 관련하여 이전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때가 조선 후기에서 일제 강점기 사이이다. 이때는 기독교가 전래하여 활발히 전해지는 시기와 맞물린다. 이 글에서는 이 시기 기독교 재물관의 특성이 어떠했는지 살피고 그것이 이전 시기와 어떻게 다르며, 나눔 인식 면에서 그 차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필 것이다.

선학들의 연구 중에, 신학 연구의 차원에서 물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말했는가 등을 연구하는 것¹⁾이 있었고, 한국 초기 기독교사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문화 운동이나 통일 운동, 교육 운동 등을 살핀 내용²⁾이 있었다. 문학 부분에서는 선인들의 재물관 및 경제관념의 변화를 담은 작품을 탐구하는 등 다양한 방면의 연구³⁾가 있었다. 최근에는 경제학, 사회학이나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복지사회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는 대체로

1) 김득중, <초기 기독교공동체와 분배정의의 구현>, 발행처: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34집 5호, 1990, 13~23 등 다수.

2)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장금현,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 연구-1884~1939년을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등 다수.

3) 정하영, <치부담에 나타난 윤리관>, 발행처: 이화어문학회, 『이화어문논집』 9, 1987, 151~169.; 최기숙, <돈의 표상성: 18·19세기 경제 관념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18·19세기 야담집 소재 '돈' 관련 일화를 중심으로>, 발행처: 국제어문학회, 『국제어문』 29, 2003, 261~297 등 다수.

현대의 문제에 국한하고 있다.⁴⁾ 조선시대와 현대의 중간에 놓인 일제 강점기의 재물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특히 이 시기 한국 사회는 기독교의 전래와 급속한 확산에 주목하여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신학이나 교회사 연구자는 상대적으로 국학 분야, 중세 및 근대 한국사나 한국인의 인식사 분야와 연계한 연구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국학 분야 연구자도 교회사적인 분야와 연계한 연구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조선말에서 일제 강점기 사이 기독교 전래에 따른 나눔 인식의 변화 양상을 다루는 연구는 아직까지 미미한 형편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시기의 한국 기독교인의 재물관과 나눔 인식을 다룬다.

II. 1920년대 이후 기독교 절제운동과 생활안내서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여기에서 조선시대까지의 재물관에 대해 정리해 보자. 그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우리 선인들은 세상 모든 것을 하늘이 다스린다고 믿고 그에 따른 운수가 있다고 여겼다. 그 천리(天理)에 순응하면 삶이 평탄하나, 거스르면 천벌이 내린다고 여겼다.⁵⁾ 이때 하늘이란 저항할 수도, 대화를 시도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인간은 그에 순응할 뿐이다.

4) 강철희·주명관, <한국인의 기부참여 행동에 관한 연구>, 발행처: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10집 1호, 2008, 1~38 등 다수.

5) 선인들의 물질의식에 관해서는 서신혜, 「漢文短篇에 나타나는 인물의 재물관 변화 방향과 그 의미」, 발행처: 온지학회, 『온지논총』21집, 2009, 129~153; 「조선시대 부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몇 인식에 대한 연구」, 발행처: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고전과 해석』9집, 2010, 129~155 참조.

우리 부부가 손발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부지런히 일하였는데, 하는 것마다 다 뜻대로 되었습니다. ...재산으로 만 석을 채운 후에 그것을 쓰기로 했는데, 구천 석을 받은 지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1천석을 더하기야 아주 쉬운 일일 듯 싶었는데 혹 의외의 화재를 당하든가 하는 등으로 정한 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어제 우리 늙은이 내외가 상의하기를 ‘조물주께서 만 석을 채워 주시려 하지 않으시고, 우리 내외의 나이가 둘 다 칠십 줄이니 지금 시원스럽게 써보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죽는다면 이것은 곧 왕장군 곳간의 귀신을 면하지 못할 터이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하였습니다.⁶⁾

“재물이라 하는 것이 어찌 한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또한 맘대로 하고자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다. 나는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재물이 이만큼이나 되는 동안, 비록 늘 실패하지 않으려 도모하긴 했지만 의외의 소득이 많았다. 요컨대 천행으로 재물이 쌓인 것이다. 하늘이 이미 재물을 가지고 내게 모아 주었는데, 내가 만약 그것이 내 것이라고 여겨서 내 마음대로 하려한다면 반드시 천벌이 있어 내 몸에 매우 불리하게 될 것이니, 내가 어찌 감히 그렇게 하리오?”⁷⁾

조선 후기 서사에서 흔히 보이는 예 중 둘을 가져왔다. 인물의 말에서 확연히 드러나듯, 부는 하늘이 주는 것이다. 9천석까지 쉽게 채워졌으니 한두 해만 더하면 만석이 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계산이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앞의 이야기나, 실패하지 않으려 노력하긴 했지만 의외

6) 『東稗洛誦』上: 夫婦胼胝手足, 勤勞治生, 凡所拮据, 無不如意...要待家資滿萬石然後, 方擬用財, 而秋捧九千石, 已近十年, 加作一千, 勢所甚易, 而或遭意外之回祿, 無以充所期之數. 昨日老夫婦相語曰: “造物之意, 不欲蓋藏之充萬, 而內外年紀, 俱垂七耋, 及今不用手快施, 而一朝奄忽, 卽將未免王將軍庫子之鬼, 豈不可悲哉.”

7) 『雪橋別集』5권, 漫錄6의 제 2화: 貨財之爲物也, 豈一人之所可擅者乎. 亦非欲擅而得擅之物也. 吾以白手, 致貨如此, 雖謀爲之不失, 然多料外之得, 要之以天幸, 而爲貨財之取寄積也. 天旣以貨財, 寄積於我, 我若認爲吾財而擅有之, 必有天殃而大不利於吾身, 吾何敢然哉.

의 소득이 많아서 재물이 모이더라는 뒤의 이야기나 실은 같은 맥락이다. 인간의 의지나 원인 제공과는 상관없이 하늘의 뜻대로 어느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다. 만석꾼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기 싫다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늘이 준 운수가 다 하면 인간이 아무리 해 봐야 그 재물을 지킬 수 없다. 오직 천리에 '순응'하는 것이 인간이 취할 지혜롭고 바람직한 행동이다. 그래서 인간은 만석꾼 되기를 포기하고 소비하는 생활로 바꾸기도 하고, 천리를 거스르다 천벌을 당할까봐 사유재산이라도 마음대로 쓰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

둘째, 유교 사회였던 조선에서 대체로 돈은 도(道)와 공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돈은 입에 떠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선비는 창고나 쌀독이 차고 비는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학문에 정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었다. 박지원의 소설 〈양반전〉에 나오는 양반 형상, 〈허생전〉에 나오는 허생의 형상이 그 전형적 모습이었다. 여러 양반들이 쓴 〈제망실문〉에서도 자신이 쌀독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아내가 다 알아서 했다는 것이 당연하게 나오기도 한다.⁸⁾ 조선에서는 아무리 지위가 높고 재물이 많더라도 청렴하게 근검절약하며 사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겼다. 그래서 청백리(淸白吏)로 불린다는 것 자체가 조선 사회에서는 매우 명예로운 일이었다. 누군가를 두고 그가 '청렴했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그의 인격이나 인물됨에 대한 평가 전부를 말해주는 것이기조차 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야 가난이 불편하고 비극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극심한 가난을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조금 생기게 되었을 뿐이다.⁹⁾

이제 이전 시기의 인식과 비교하면서 기독교 전래이후의 인식 변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 후기부터 일제 강점기 사이의 재물관을 살펴

8) 예컨대 강세황의 〈제망실문〉에서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난다.

9) 바람직한 자질로서의 가난과 청렴에서 부끄러운 상황으로서의 가난으로의 인식 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최기숙의 앞의 논문에 자세히 다룬다.

며, 나눔 문제를 논하려면 먼저 기독교 절제운동¹⁰⁾을 살펴야 한다. 기독교 재물관 및 나눔 인식의 확산은 이 운동의 맥락과 연관되어 있다.

1920~30년대 한국 기독교는 금주, 금연, 공창(公娼)폐지 운동으로 대표되는 절제운동을 벌였다. 1923년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1927년 금주단 연동맹, 1932년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 등의 여러 단체를 만들었다. 《기독신보》 등의 여러 기독교 신문, 잡지사에서도 다양한 보도를 통해 이를 돕기도 했다. 기독교 신문이 아닌 《동아일보》 등에서도 관련 기사가 자주 나올 정도였다. 절제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도 매우 많았다. 예를 들어 《동아일보》 1935년 6월 3일 2면에는 3000여명이 숭실학교 운동장에 모인 후 절제운동 행군식을 하려는데 당국이 교통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자체를 요청하였다는 기사도 나온다.¹¹⁾

기독교계에서는 출판물을 이용해서도 활발히 절제운동을 벌였다. 1920~30년대에 금주, 금연 등의 절제운동을 벌인 것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생활 태도 변환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책을 출간, 보급하였다. 크리스틴 틴링(C.I. Tinling)의 「금주미담」(채성석 역, 1923)이 출판되었고, 「금주강연」(조선예수교서회, 1932)도 이 운동과 관련하여 출간되었다. 이효덕이 편찬한 「금주독본」(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1936)과 「금주실화집」(조선예수교서회, 1936)도 출판되었고, 「유년절제독본」(조선예수교서회, 1933) 등의 여러 책도 모두 이런 맥락에서 나온 책이다.

금주, 금연 등을 말하며 출간한 이런 책들이 대체로 무엇을 하지 말아

10) 절제운동에 관해서는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서울: 성광문화사, 1979); 이만열, 〈절제운동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소식』14호, 1990, 33~44.; 윤은순, 1920~30년대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등의 논문에서 자세하다.

11) ‘節制運動會’, 동아일보, 1932년 5월 22일자 제3면.; ‘基督文化運動의 第一聲 節制懸賞雄辯’, 동아일보, 1934년 9월 7일자 제2면.; ‘朝鮮物産獎勵 春期大講演’, 동아일보, 1936년 4월 20일자 제2면 등 관련 기사가 자주 나온다.

야 한다는 식으로 금지적, 부정적인 접근을 보인 책이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안내한 책들도 여럿 출간되었다. 콕안런(C.A.Clark)의 「교회사회사업 Christian Social Service」(조선예수교서회, 1932), 소얼도(T.S.Soltau)의 「신자생활의 첩경 A Straight Road to Christian Truth」(조선예수교서회, 1935) 등이 이런 예이다.

주목할 것은 후자 계열의 책들이다. 금주, 금연 등을 권장하는 책은 금주, 금연한 사례나 그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어떻게 생활하라고 알리는 긍정적인 안내서에서는 보다 다양한 내용이 나온다. 이들 책에서는 기독교 절제운동이 벌어지던 시기 신자가 어떤 삶의 태도와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자세히 안내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책에는 보통 여러 예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예들 역시 다양한 인물, 다양한 상황의 것들로 망라되어 있고,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여 출판 주체의 생각을 보다 잘 살필 수 있다.

그렇다면 절제 운동과 이런 출판물들이 이 시기 경제관념이나 나눔 의식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금연, 금주 등의 절제운동은 생활 태도 전반에 관한 문제로 이어졌고, 이는 필연적으로 절약, 저축 등의 경제 문제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금주금연운동에 동참하는 사람이 늘면서 그 돈이 저금으로 이어졌다. 경성전기주식회사 승무원들은 1925년 금주저축회를 발족하여 결국 모든 승무원이 여기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었으며¹²⁾, 경제가 어려워지자 지역별로 생계 곤란 문제 타개책으로 술과 담배를 절약하여 저축한다는 기사¹³⁾ 역시 이 시기에 보인다.

요컨대 절제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별히 경제 문제에 관한 관심

12) 매일신보, 1925년 1월 29일자; 매일신보, 1925년 2월 4일자. (장금현, 앞의 논문, 197면 재인용)

13) '금주단연호 · 고 그 돈은 저축', 기독교신보, 1927년 6월 29일자; '공주의 금주단연시행', 매일신보, 1930년 11월 20일자 (장금현, 앞의 논문, 198면 재인용)

도 높아지고, 재물 관념, 나눔 인식도 바뀐 것이 사실이다. 이 시기 출간된 여러 책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네 책을 통해 재물 문제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책들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이 써서 한국인이 번역을 했건 처음부터 한국인이 썼건 상관없이 기독교적인 목적에서 기독교 선교사 및 기독교 단체의 주도하에 출간된 책이라는 점에서 살펴야 한다.

- 「금전(金錢)은 인격시험품(人格試驗品) *Money the acid test*」(조선예수교장로회, 1928): 미국인 매커내기(David McConaughy)가 지은 책을 평양신학교 교수이자 선교사였던 고려위(R.W.Coe)가 번역하고, 광안련의 교열을 거쳐 간행한 책이다. 1957년에 다시 간행되고 1960년에 재판이 나올 만큼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 책은 한마디로 기독교적 금전 훈련을 위한 책이다. 번역서이지만, 당시 대표적 신학교의 교수가 역술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인 장로교 교단 차원에서 발행한 것에서 알 수 있듯 ‘기독교적 금전 문제’에 대한 공식적 기준으로 공표한 책이라 할 수 있다.
- 순결(純潔)한 생활(生活) *The White Life for Man*」(조선예수교서회, 1930): William E. Biederwolf(1867~1939)가 쓴 것을 백남석이 번역하여 1930년에 조선예수교서회에서 발행한 것이다. 백남석은 당대 유명했던 맹인 전도사 백사겸의 아들이다. 윤치호가 1906년 개성에 설립한 한영서원에서 공부했으며 졸업 후 윤치호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 미국 유학을 했다. 돌아와 연희전문학교 영문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 「신자생활의 첩경」(조선예수교서회, 1935): 소열도(蘇悅道, 1890~1970) 목사가 지어서 1935년 조선예수교서회에서 발행한 책이다. 서

문에 의하면, 이 책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활하며 사는 데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하기 위한 책이다. 소열도는 1914년에 미국북장로교회 파송 선교사로 와서 청주지방에서 주로 활동했다. 청남학교를 설립하는 등 교육 부문에 헌신하며 약 23년간 활동하다가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한다는 죄목으로 1937년 일본에 의해 강제로 추방되었다.

- 「위인기담(偉人奇談)」(광명사, 1936): 유여대(劉如大, 1878~1937) 목사가 써서 1936년 신의주에 있는 광명사에서 간행한 책이다. 유여대는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나 이후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목사이다.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고, 의주 지방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잡혀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 서문에 의하면, 이 책은 인물 소개가 주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각 개인의 수양과 사회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적은 책인데, 이는 당대 기독교 사회 변화 운동과 관련되는 맥락으로 읽힌다.

이상과 같은 책¹⁴⁾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III. 일제 강점기 기독교적 재물 인식의 특징

대상으로 삼은 책에서 경제 부분을 중심으로 살필 때, 기독교 전래 이전과 달리 드러나는 인식을 크게 둘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유형의 재물을 무형의 인격과 연결시켰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 주체를 새롭게 규정했다는 점이다.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 『금전은 인격시험품』은 서울대, 연세대, 숭실대, 배재대 등 다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신자생활의 첩경』은 연세대, 장신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순결한 생활』과 『위인기담』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이들 네 책에 관한 개별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1. 재물의 효용 규정: 인격 형성의 도구로서의 재물

이전 시기와 달리 기독교 전래 이후 경제적인 부분에서 보이는 두드러진 인식 변화는 재물 소비 경험이나 원칙 등을 개인의 인격이나 품성 형성의 문제와 결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기독교 출판물에서 이런 내용이 보이는데, 특히 「금전은 인격 시험품」의 「서언」에 이것이 잘 드러난다.

(……) 各個人이 맛당히 覺悟할 것은 各自의 가진 機會, 地盤, 物質, 健強, 生命, 其他全部에 絶對所有權利를 享有한 者 어디 있는가. 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生産과 分配에서 物主人 것을 承認하고 거긔서 個人과 社會를 對手로 함과 共히 또한 하나님을 對手로 하여야 할 일을 承認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財産이나 金錢으로 받은 것을 收得함에서 總決算을 하는 디까지 全過程에서 各個人의 品性에 及하는 結果를 論함이 本書의 要素이다. 事實 金錢은 世上物件中에 7장 平凡한 것이나 그 反面으로 非凡한 永遠의 結果를 만드는 物件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人類에게 맡겨 訓練시키는 立場을 삼았으니 極히 重要한 地位 곧 支配員職을 다하게 하여 施濟라 하는 것으로 私慾病의 毒을 없시하고 獻金이라는 것으로 破廉恥를 治하게 하였도다.

사욕에만 눈이 어두운 현실을 지적한 후 이와 다른 사랑의 가치를 전한 기독교 사상을 일깨우고, 이어 금전 문제에 관한 기독교 사상을 정리하고 있다. 절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그 소유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대수(對手), 즉 파트너가 되어 함께 생산과 분배를 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금전이 품성에 미치는 결과도 논하고, 특별히 시제(施濟)의 문제도 다루겠다고 선언한 후 실제 그것을 쓴 것이 이 책이다.

물질 문제와 인격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은 당시 기독교계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힘써 전파한 것이기도 했다. 예컨대 1921년 3월 12일 창간된,

YMCA의 기관지인 『청년』에서 관련 논의를 볼 수 있다.

富는 財貨의 莫大한 蓄積이 안이요 道義的 關係에 立한 高尚하고 強健하며 眞情하고 정의한 人格을 양성하여 人格적 봉사를 구득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人格의 勢力을 有하는 것이 卽 富가 되는 것을 개다를대 우리는 먼저 天賦한 모든 潛勢力을 圓滿히 發展하여 적거나 크거나 社會에 人格의 奉仕를 貢獻할 수 있는 人格이 될 수 있는 可能性이 有한 것을 自信할 수 있스며 그러한 人格을 多數히 養成하는 富의 圖謀 中에도 可能한 圖謀인 것을 알수가 있습내다. … 積蓄한 財貨도 精神化를 하여 社會化를 하여 人格化를 식히는 때에 비로소 眞意味의 富가 됩니다¹⁵⁾

부를 통하여 도의적 관계에 선 좋은 인격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부요함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진정 그것이 의미 있는 부가 된다고 했다.

이런 논의는 한 사람의 논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파되었다. 예를 들어 강명석도 존 러스킨의 부의 정의를 소개하면서 ‘人生的 眞目的을 達하기 爲하여 善用하는 그것이라야 富’라고 하기도 했다.¹⁶⁾ 즉 당시 기독교에서는 부의 문제를 인격의 문제, 윤리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나아가 부의 사용도 이것에 맞추어야 한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전파하였다.¹⁷⁾

「순결한 생활」의 ‘엇더케 젊은 자가 그 행실을 깨끗이 하리오’ 부분에서도, 재물을 개인의 성품 완성의 문제와 연관시킨 점을 잘 볼 수 있다.

15) 盧正一, 〈人生的 二大問題〉, 발행처: 청년잡지사, 『青年』1922년 1월호, 17~18.

16) 姜明錫, 〈존 러스킨(John Ruskin)의 經濟思想〉, 발행처: 청년잡지사, 『青年』7권 6호 (1927년 7-8월), 15~22.

17) 강명숙, 「일제강점기 한국 기독교인들의 사회경제사상」(서울: 한국학술정보, 2008), 163~167 참조.

이 책에 의하면 재물을 모으기 위해 분투하고 노력하는 일을 통해 개인의 품격(品格)이 완성된다. 즉 노동 등은 성품을 이루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부잣집에 태어나 그렇게 재산을 물려받은 이들은 불리하다고 하였으며, 또 바르게만 한다면 ‘많이 벌고, 많이 모으고, 많이 쓰라는 것’을 권장하고도 있다. 예를 들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대가 혹 생활을 위하여 근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더라도 그대의 품격을 짓기 위하여서는 노력하여야 할 것이니 흔히 자기의 노력이 업시도 임의 생활이 풍족한 사람은 능히 永久性을 띤 품격을 일우기를 뜻할진대 여간한 분투와 노력이 업시는 일울 수 없다...그러나 貧보다 富가 만흔 청년으로 순결한 생활을 못하게 하고 그릇된 길로 인도한 것을 기억하라...([순결한 생활], 3-5.)

고 하였다. 이미 풍족한 사람은 건실한 품격을 지니거나 순결하게 생활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부를 이루기 위해 힘써 일하며 노력하는 것이 결국 좋은 인격을 만든다는 논리를 펼 것이다.

사실 인격이나 품성은 무형의 것이고 재물이란 유형의 것이며, 이 둘은 언뜻 연결되지 않는 범주의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재물을 가치 있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또 자기 재물을 남을 위해 내 놓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 자체가 훌륭하다고 하면서 지출 행위와 그 사람의 인격을 동일시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돈을 쓰는 것 자체가 인격 형성을 이룬다는 인과 관계 논리를 펴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하지만 이 시기 기독교에서는 앞서 인용한 대로 이런 논리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것이다.

2. 경제 주체의 변화: '칭지기'인 개인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서, 경제 주체인 사람의 역할을 '칭지기'로 규정한 논리를 신자들에게 보급하였다. 여러 책에서 이 '칭지기'라는 말이 나온다. 「금전은 인격시험품」에서는 '지배원직'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표현이 다를 뿐 개념은 같다. 이는 세상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사람은 이에 대한 관리권만 지닌다는 점을 분명히 한 말이다. 재물 문제를 다루는 기독교 출판물에서는 공통적으로 이런 인식을 담고 있으며, 이를 당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권리는 田土에 대한 收容大權을 가졌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권리 안에서 99개년 有限借地權을 얻은 것만 분명하니 결단코 永代借地權은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이니라.(「금전은 인격 시험품」 제2장 소득, 38.)

세상 사람이 자랑하는 것은 재물, 토지, 권세인데...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가지신 것이다. ...각 신자가 맞춘 칭직이의 책임을 주님께서 명백하게 가르치셨다.(「신자생활의 첩경」 제6장 신자와 칭직이, 41.)

하나님이 모든 전토나 재물에 대한 수용권을 가졌다고 하였다. 이는 조선 사람들이 가졌던 '천하에 왕의 땅 아닌 곳이 없다 天下莫非王土'는 개념과 전혀 다른 인식이다. 첫째 인용문에서 인간이 '99개년'의 권리를 가졌다고 한 것은 당시 사람의 최대 수명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사람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땅을 빌려 살다가 결국 다 그대로 둔 채 돌아가는 존재라는 말이다. '결단코' 라는 표현으로 그것을 강조하며 보급하려는 의도가 보이기도 한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칭지기라는 전제는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고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인간을 칭지기로 규정하는 것은 칭지기인

인간 생활 전반을 규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인간은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이기 때문에 생활 태도를 이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 청지기이니 선한 관리자로서 지출 면에서는 당연히 절약해야 한다. 자기 것이 아니니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주인으로부터 주어지므로 모든 면에서 근면할 것이 요구되는 등 청지기의 생활 전반이 주인과 연관된다. 재물의 사용뿐만 아니라 시간 사용 등까지 그렇다. 그래서 바람직한 청지기로서의 생활을 안내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절제 운동 방법이 되기도 했다.

예컨대 「신자생활의 첩경」에서는 ‘신자와 청직이’라는 장을 두어 청지기로서 신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명하였는데, 특히 여기에서는 청지기 직분의 범위를 ‘하나님의 오묘한 도, 우리의 육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설명하였다. 요약하자면, ‘복음은 모든 신자들에게 맞긴 바이니 자기만 위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복과 구원을 빚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고, ‘우리의 육체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우리의 몸과 령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랴고 힘쓸 것’이며, ‘세월이 속히 지내감에 따라서 봉사하고 증거할 기회도 그리하니...남은 세월을 조심히 리용할 것’이고, 재정도 주님의 소유이므로 이를 ‘확실이 알면 그 밋는 수입을 다른 방식으로 쓸 것’이라고 했다.¹⁸⁾ 청지기이면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게 된 지식, 즉 복음도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몸도, 시간도 주님의 것이므로 맘대로 사용할 수 없음을 신자들에게 전파한 것이다.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사람들이 알기는 우리 자신과 모든 재물은 주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18) 「신자생활의 첩경」, 42-43.

영광을 위하여 자기에게 맞기신 것 뿐인 줄노 알면 자기 재정을 올케 사용하
기 위하여 성신에게 특별한 지도를 받을 줄노 각오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모든 신자들이 이 리치를 확실히 알면 그 받는 수입을 다른 방식으로 쓸 것이
다. (「신자생활의 첩경」 제6장, 신자와 청직이, 43.)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옳게 사용하기 위해 ‘성신’에게 지도
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성신’은 ‘하나님’과 같은 개념이다.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칭지기’이므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기 위하여
주인인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여야 한다는 소비 생활의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이런 내용도 여러 책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금전은 인격시
협품」에서는 소비 행위의 기준을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성신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비교하면 표현만 다를 뿐 주인의 뜻에 따라 소비한다는 면에
서 사실은 같은 내용이다.

IV. 전통적 재물 인식과 기독교 재물 인식의 차이

기독교 전래와 관련하여 새롭게 나타난 인식, 즉 재물이 인격 완성의
수단이라고 한 점과 인간을 칭지기로 규정한 점은 이전까지의 인식과 어
떻게 다른지 살펴볼 차례이다. 그런 바탕 하에 그런 변화된 인식이 나눔
인식의 양상 변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필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전래 이전 조선시대에 물질적 나눔을 실시한 예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주도의 김만덕, 경주 최부잣집 등의 예가 전해진다. 하지만 인
도적인 차원의 순수한 나눔의 예가 그리 많지는 않다. 조정의 명령으로

지방관들이 각 고을 부자에게 잉여 곡식의 저가 유통을 실시케 했던 ‘권분(勸分)’, 흉년에 벼슬아치들이 자신의 녹봉을 깎아 구제에 사용하게 하는 ‘연봉(捐奉)’ 등의 사례가 여럿 있었지만 이들은 표면적인 나눔일 뿐 강제적 세금 징수에 가까웠다. 민간 설화들에서 나눔을 실천한 예도 상당수 보이지만, 나눔에 나서는 근본 인식에서는 기독교의 그것과 조금 달랐다.

유교 사회 조선에서 도와 돈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기독교 전래 이후에 생긴 관념은 이와 다른 것이었다. 앞서 말한 대로 기독교에서는 재물을 인격 형성과 직접 연결시켰다. ‘훌륭한 인격과 품성의 획득 혹은 회복’이 유교의 도이며 유교에서 추구하는 인간의 목표인데, 이런 도를 추구하는 모습은 재물에 대한 관심이나 이것의 추구하고 함께 갈 수 없는 것이었다. 둘은 모순 관계라 하나만 선택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조선 사람들은 당연히 도를 선택하며 돈을 멀리했다.

물론 조선시대에 도와 부를 함께 말한 사람이 있기는 했다. 조선 후기 실학적 사상을 가지고 있던 최한기¹⁹⁾는 이렇게 말했다.

부자가 되려거든 모름지기 부유해 질만한 사업을 경영하여 사람들이 그 공급하는 것으로부터 밑천을 삼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그래야 그 부유함을 흠모하고 부러워할 것이다. 만약 남에게 혜택이 되는 것은 없고 도리어 남의 것을 빼앗는다면 이는 아비한 욕심이니 비록 재산이 많다 한들 사람들이 어찌 이를 부하게 여기겠는가?

부귀를 억제하고 학문에 힘쓰어 어찌 부귀로 인해 학문을 이루는 것만 하겠는가. 부귀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正道와 不道로 나뉜다. 정도로 얻을 수 있다면 고귀한 사람이나 큰 부자가 되는 것을 사양할 필요가 없으나, 부도로 얻는다면 半級이나 分錢이라도 나에게 누가 될 뿐이다.²⁰⁾

19) 최한기 등의 이런 논의에 관해서는 서신혜(2010)의 앞의 논문 참조.

20) 崔漢綺, 〈以道富貴〉, 『教人門』四, 『人政』卷11: 又欲富, 須經營可富之事務, 人有資於調給, 而欲羨富有, 若無及人之惠澤, 而反侵奪於人, 是鄙欲也, 雖使衣食豐足, 人豈

한마디로 ‘부유해 질만한’ 바른 사업을 하고, 또 그 사업을 ‘밧친 삼아’ 다른 이들과 함께 부하게 되어야 그것이 참 부라는 것이다. 최한기의 논리와 비슷하게, 이익의 문제라도 도에 맞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한 예도 있다.²¹⁾ 이런 논의는 ‘도라는 기준’을 두고 재물의 획득 방식, 사용 방식이 이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판결하는 것이다.

반면 일제 강점기 기독교측에서 보인 인식은, 재물을 사용하는 경험을 쌓아감으로써 나쁜 인격을 버리고 좋은 인격을 만들게 된다는 ‘도구적 인식’이다. 이것에 의하면 재물과 인격 형성은 모순 관계도 아니고,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의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요컨대 조선시대 선비들의 일반적인 인식처럼 도와 돈이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건, 최한기 등의 일부 인식처럼 돈은 정도에 맞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건, 이런 인식은 일제 강점기 기독교측의 인식과는 다른 것이었다.

또 우리 선인들은 운수를 믿고 천리에 순응하며 살면서, 그 천리는 거역할 수 없는 것이라 여겼다. 반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만물의 소유자, 인간을 청지기라 하였다. 청지기는 종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는 자율권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선한 청지기가 주인의 뜻을 헤아리며 그것에 맞게 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그 노력 끝에 좋은 결실을 맺기도 하고, 좋지 않은 결실을 맺기도 한다. 그 청지기는 나중에 주인과 결산을 하면 된다. 하나님이 재물의 진정한 소유권자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부귀와 이익 정도를 무조건 정해 놓고 인간이 따르도록 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자율권을 주고 이것을 스스로 관리하게 한다. 그러면 인간이 주체적으로

有富之者。其抑富貴而勉學問，豈若因富貴而成學問。富貴，人之所欲，有以道不以道之分。以道得之，雖極貴鉅富，不必辭矣。不以道得之，雖半級分錢，適足爲身之累。

21) 崔徽之, 〈治絲者說〉, 『鰲洲先生文集』卷1에서는 겉모습만 화려한 베를 짜서 유통시킨 사람에게 그 不道함을 꾸짖는 이야기가 나온다.

열심히 하여 자기의 결과를 내게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며 함께 일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인간을 재물의 관리인으로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원리 우리를 주께 형상대로 창조(창1:26)하시고 또한 우리를 협동자 '하나님의 성질을 논화 가진 자가 되게 하셨으니 임의 우리에게 붙쳐준 이상에는 또한 선택하는 권을 합리적으로 쓰게 하시 누구든지 응당 하여야 할 하나님의 지비원이 되게 할 뿐 아니라 원하시는 대로 협동자시지 되게 하셨스나(『금전은 인격 시험품』 5면)

기본적으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자기 형상을 가진 인간은 청지기뿐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 이 책에서는 그런 입장에서 미국 고등법원의 한 변호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동사(同事)'한 예로 소개하기도 했다.²²⁾

조선시대까지 사람들의 인식을 이끌어 온 '천리'라는 것과 기독교 전래 후 기독교 신도들이 갖게 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치부 방식의 차이로도 연결된다. 이전에는 인간이 검소하게 열심히 일하면 부를 쌓아갈 수 있지만 그래도 결정적으로 인간이 부하게 되고 안 되고는 하늘이 내려준 '운수'에 의해 좌우된다. 앞서 인용한 것처럼 '구천 석 모으는 것은 쉽게 되었는데 마지막 천 석을 보태는 것은 아무리 해도 안 된 것과 '천행으로 재물이 쌓인 것'은 모두 이런 깨달음을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인식을 전파했다.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모든 것의 관리를 맡긴다. 인간은 그 받은

22) 『금전은 인격 시험품』, 136~137.

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며, 이를 이용하여 이문을 남기기도 한다.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청지기 노릇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 인간은 나중에 그 결과를 주인 앞에 내놓으며 결산을 하는 것이지 그 결과까지 주인이 정해놓고 인간이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측의 설명에 의하면, 치부는 검소로 하고, 열심으로 하며, 선한 관리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청지기라는 신분을 상기시키고, 동시에 근면하고 바른 생활 태도를 말함으로써 청지기 직분을 잘 해 내기를 추구한 것이다.

요컨대 조선시대까지는 주로 '천리'에 대한 '순응'의 자세를 강조한 것에 비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한 근면하고 자율적인 '관리'의 자세를 강조한 것이다.

V. 물질에 대한 새 인식이 나눔 문제와 연관되는 지점

앞에서는 기독교 전래 이후 특히 1920~30년대 기독교 절제운동의 맥락에서 전파된 물질 관념이 전시대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살폈다. 이제는 이런 인식 차이가 나눔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필 차례이다.

첫째, 물질이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는 도구라는 인식은 물질의 사용 문제에 대한 보다 유연한 자세를 갖게 한다. 물질을 배척하지 않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재물추구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바른 품성, 인격의 완성에 있으므로 그것을 위해 재물도 보다 쉽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다.

금전을 가지고 스용하는 것은 그 인식에서 노히게 하고 모화두는 것은 랑 비를 막는 일이 되며 늬을 도와주는 것은 리기주의(利己主義)를 금하는 일이

되고 증선금을 훔쳐주는 일은 치우치는 편협심(偏狹心)에서 건지는 일이며 정밀한 계산은 부정직한 데서 버서나게 흠이 되고 늠을 감화하는 행동은 쓸데 없는 자리에서 나서게 흠이 되느니라. 그런즉 엇음은 그 몸을 부화(富華)롭게 하고 쓰는것은 그 몸치장을 작만하며 저축은 경제에 넉넉하게 하고 주는 것은 마음을 관대하게 하며 분배는 판별력(判別力)을 더하고 정미롭게 계산함은 정신을 정확하게 하며 늠을 감화함은 쓸데있는 인물이 되게 하는 것이니라. 지원원직에 관한 연구가 그 거름을 나아감에 쓰라 더욱 명백히 하게 될 것이니 아조 모르고 하는 중에서 될는지 의문이나 금전을 버는 것과 저축함과 스용함과 시제함과 계산하는 과정(過程)에서 사람이 일우워지느니(『금전은 인격 시험품』 제1장 청지기, 27~28면)

인용한 부분에서 잘 보이는 것처럼 이 시기 기독교측에서는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인격 형성을 이룬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리하여 재물 문제조차 한 개인의 신앙의 성숙 및 구원의 완성을 위한 도구로 삼았던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질 때 인간은 재물 자체에 연연하지 않으며, ‘재물과 다른 어떤 목표’를 갖게 된다. 재물을 모으기 위해 아끼며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재물을 어떤 곳에 사용하는 것도 그것 자체로는 평가할 수 없고 그 ‘다른 어떤 목표’에 비추어 유의미하거나 무의미한 것이 된다. 그 목표에 신앙적인 완성, 인격의 완성을 놓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재물 관련 인식이었다. 그러니 재물을 소비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게 하더라도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인격 완성 및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한 일로 연결되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편안하게 이 일을 하게 된다. 즉 재물을 인격완성의 수단으로 보는 인식은 재물에 대한 나눔의 행위로 보다 쉽게 나아갈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던 것이다.

둘째, 기독교 전래 이후 재화를 벌어들이고 사용하는 인간의 본질은

‘칭지기’로 규정되었다. 기본적으로 칭지기는 주인의 뜻 가운데서 행동한다. 주인의 뜻을 헤아려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은 칭지기의 모습이다. 주인인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즉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은 ‘사랑’인 하나님을 본받아 그 사랑을 전하는 데에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도, 물질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기 마련이다. 이는 자연스레 이웃에 대한 나눔과 기부로 연결된다. 재물이 개인의 것이 아니기에 사람은 자기의 쾌락만을 위해 재물을 사사로이 움켜쥐거나 그것을 마음대로 써버릴 수 없다. 이 시기 기독교 출판물들에서 수입, 지출 문제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말하고 근검, 절약 등까지도 모두 강조하되, 지출 중에서 특히 시제(施濟), 즉 나눔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기독교출판물에서 시제의 문제를 말할 때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예컨대 「금전은 인격 시험품」 제5장 시제 부분에서는 몇 가지 주요 명제를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나가고 있는데, 그 첫 명제가 ‘시제는 하나님의 한 성질이라²³⁾’이다.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고, 사람은 그 주인인 하나님의 뜻에 따른 소비를 해야 하는 칭지기’라는 이런 인식은 ‘나눔 인식’으로 자연스레 이어지는 결정적인 계기이다.

나눔, 기부의 예를 널리 전파하여 그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많게 하는 것은 전도의 차원에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러니 더욱 적극적으로 강조될 수 있었다. 「위인귀담」에 나눔, 기부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 이 책에서는 ‘크리스찬’이라는 항목을 따로 두어, 크리스찬이 자선을 행한 예를 모아놓았다. 사실 ‘자선’이라는 항목을 두어 여러 자선의 예를 설명했으면서 동시에 ‘크리스찬’ 항목을 두어

23) 「금전은 인격 시험품」, 96.

이 부분을 더 소개함으로써 크리스찬의 당연한 자질이 자선인 것을 또 한번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자선 항목에서는 다른 곳에서 보기 드문 여러 자선의 예가 들어 있다. 이전 시기, 즉 조선 시대에 나왔을 법한 이야기라도 다른 기록에서 찾기 힘든 내용들이 보인다. 여러 사람의 실례를 들었는데, 특히 의주군의 임의천, 임봉격, 임상옥 3대에 걸친 자선 내용을 소개한 것(23~25면)이 있다. 긍정적 부자상이 드물게 전해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할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록이다. 또 조섭 메손의 근검과 자선 이야기도 실었다. 철필(鐵筆) 장사 메손이 아껴서 번 돈을 어떻게 자선에 썼는가에 관한 내용이 그것이다(25~32면). 의주 지방에서 한정규가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게 하여 번 돈으로 정주 지방 기근 때에 음식을 사서 그들에게 준 내용이 소개되기도 했고(33면), 정주 지방 김재초가 고생하고 근검하여 번 돈으로 나무다리를 설치하여 여러 사람을 편리하게 하고, 매년 진과(眞瓜), 즉 참외를 심어 행인에게 제공한 것도 자선의 모범적 사례로 소개되었다(33~34면). 「위인기담」의 ‘크리스찬’ 항목 중 세 번째에, 예수의 金律을 실행한 사업가 미국의 아더내쉬도 나온다. 그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법칙대로 사업을 하였고, 이익이 나면 ‘이것은 나와 여러분이 한 가지로 얻은 것이니 나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는 것이라’ 하고 크게 한 몫씩 주었다.(84면)고 한다. 이 책에 이런 내용들을 다수 적었다. 기독교의 나눔 인식을 삶에서 실천하는 조선 크리스찬의 행동을 당연한 듯 소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천이 그 혜택을 받은 당시 사람들과 그 소문을 들은 비 기독교인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쉽게 추측할 만하다.

VI. 마치며

필자는 우리나라 역사 전반에 걸친 나눔 인식의 추이에 대해 일련의 연구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한 부분으로서 일제 강점기 동안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물질 인식 부분에 어떤 변화가 생겼으며, 이것이 이전과 어떻게 다른지, 또 그런 변화가 나눔 인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폈다.

조선시대까지 우리 선인들은 물질 문제에 ‘천리에 따른 운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유교 이데올로기에 의해 도와 돈의 공존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는데, 기독교 전래 이후의 물질관은 이전과 상당히 다른 내용이다. 기독교 전래 이후 물질 문제, 경제 문제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재물의 청지기적 사용을 통해 완전한 인격이 형성된다는 논리를 편 점과 경제 주체인 인간을 ‘청지기’로 규정하여 이것에 따라 생활 태도나 생산 및 소비 태도를 맞춘 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기독교 전래로 생긴 새로운 인식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나눔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했다. 기독교측에서는 물질이 인격을 완성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전파했는데, 이럴 경우 물질 자체에 연연하지 않고 다른 것의 완성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목표 달성을 위해 하는 지출을 훈련으로 여기며 자기 물질을 나누는 것을 좀 더 편안하게 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돈에 대한 집착도 약화되며, 그것이 자연스레 나눔의 자세와 연결된다. 또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인간이 청지기라면, 청지기는 주인의 속성인 ‘사랑’을 실천하는 방향, 즉 나누고 베푸는 방향으로 물질을 사용할 것을 지향하게 되니 이것 역시 나눔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면의 한계를 고려하고, 주제의 집중성 유지를 위해, 실제로 그런 논리에 의해 이 시기 한국 기독교인들이 절약과 구제에 앞장선 정도와 그 영향력까지 다루지는 못하였다. 또 전통적인 경제인식이

기독교전래이후 어떻게 바뀌는가만 다루었을 뿐 초기 한국에 전래된 기독교의 이런 경제관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독교에서는 ‘나눔’의 모습이 부족하게 된 상황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등은 다루지 못하였다. 향후의 논의로 넘기려 한다.

참고문헌

- 강명숙. 『일제강점기 한국 기독교인들의 사회경제사상』.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8.
- 강철희, 주명관. 〈한국인의 기부참여 행동에 관한 연구〉, 발행처: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10집 1호. 2008, 1~38.
- 김권정. 〈1920~1930년대 조만식의 기독교 민족운동〉, 발행처: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47집. 2006, 219~259.
- 김득중. 〈초기 기독교공동체와 분배정의의 구현〉, 발행처: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34집 5호. 1990, 13~23.
- 서신혜. 〈조선시대 부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몇 인식에 대한 연구〉, 발행처: 고전문학한문학회, 『고전과 해석』9집. 2010, 129~155.
- 서신혜. 〈漢文短篇에 나타나는 인물의 재물관 변화 방향과 그 의미〉, 발행처: 온지학회, 『온지논총』21집. 2009, 129~153.
-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서울: 성광문화사, 1979.
- 윤은순. 『1920-30년대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 연구』, 숙명여대 사학과 박사논문, 2008.
- 이만열. 〈절제운동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소식』14호, 1990, 33~44.
- 이만열. 〈한국 기독교와 미국의 영향〉, 발행처: 지식산업사,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1991, 445~493.
-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 이우성, 임형택 역편. 『李朝漢文短篇集』상중하. 서울: 일조각, 1973.
- 장금현.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 연구-1884~1939년을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정하영. 〈치부담에 나타난 윤리관〉, 발행처: 이화어문학회, 『이화어문논집』9집. 1987, 151~169.

최기숙. <돈의 표상성 : 18 · 19세기 경제관념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18, 19세기 야담집 소재 돈 관련 일화를 중심으로>, 발행처: 국제어문학회, 『국제어문』 29집, 2003, 261~295.

논문투고일: 2013. 6. 16.

심사개시일: 2013. 7. 15.

게재확정일: 2013. 8. 13.

• 국 문 초 록 •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富)에는 ‘천리(天理)에 따른 운수(運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은 이 천리에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다. 또 조선 유학자들은 도(道)와 재물이 공존할 수 없다고 여긴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기독교 전래 후 한국 기독교인들의 경제 의식에 큰 변화가 생겼다. 그 특징은 첫째, 재물 사용을 통해 인격이 형성된다는 논리를 편 점과 경제 주체인 인간을 ‘청지기’로 규정하여 이것에 생활 태도나 생산 및 소비 태도를 맞춘 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기독교에서는 물질을 인격 형성의 도구로 여겼기에 물질과 인격완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조선시대 인식과 많이 다르다. 또 조선시대의 인식과 달리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자율권을 가진 관리자라 했다. 그러므로 기독교 논리에 의하면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를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다.

기독교 전래로 인해 생긴 이런 인식은 기독교인들이 보다 쉽게 재물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했다. 물질이 인격을 완성시키는 도구라는 논리에 따를 경우, 사람은 물질 자체에 연연하지 않고 인격이나 신앙의 완성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므로 물질 나눔조차 궁극적 목표 성취를 위한 행동으로 여겨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청지기인 인간은 주인의 뜻에 따라 재물을 쓰려 한다. 주인인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므로 청지기인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방향, 즉 나누고 베푸는 방향으로 물질을 사용하려고 하게 된다.

주제어: 기독교절제운동, 청지기 관념, 나눔 인식, 기독교 전래,
금전은 인격시험품, 순결한 생활, 신자생활의 첩경, 위인기담
